

# 생식건강증진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성지식과 성태도에 미치는 효과

신경림<sup>1</sup> · 박효정<sup>2</sup> · 홍정민<sup>3</sup>

이화여자대학교 건강과학대학 간호과학부 교수<sup>1</sup>, 조교수<sup>2</sup>, 박사과정생<sup>3</sup>

## Effects of an Educational Program about Reproductive Health Promotion on Sexual Knowledge and Attitudes of University Students from Korea

Shin, Kyung Rim<sup>1</sup> · Park, Hyo Jung<sup>2</sup> · Hong, Chong Min<sup>3</sup>

<sup>1</sup>Professor, <sup>2</sup>Assistant Professor, <sup>3</sup>Doctoral Student, Division of Nursing Science, College of Health Sciences, Ewha Womans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an educational program about reproductive health promotion on sexual knowledge and attitudes of university students. **Methods:** The sample included 79 students of all grades from 3 universities in Korea. Data were collected from 8th to 11th of January, 2008 by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administered before and after the educational program.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WIN 12.0 program. **Results:** The students' scores on sexual knowledge increased, and attitudes toward sexuality changed at the completion of the educational program. The program was especially effective in 'physiology', 'contraception and abortion' and 'venereal disease and AIDS' among sexual knowledge, and in 'intercourse' and 'sexual morality' among sexual attitudes.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an educational program about reproductive health increases sexual knowledge and changes the sexual attitudes of university students.

**Key Words:** Reproduction, Education, Knowledge, Attitude

###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인간에게 성은 성적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잘못된 성본능은 영적, 정신적, 그리고 육체적인 파고를 가져오는데, 성적인 감정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 여성과 남성과의 관계가 성적 유희로 변질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Choi, 2006).

대학생은 고등학교에서의 입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갑작스러운 대학교의 개방적인 성문화에 노출되면서 이성교제가 자유로워지며 이들의 성적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 하지만 그들은 성적 감정과 충동을 적절히 수용하고 판단할 성에 관한 가치 체계가 아직 확립되지 않은 상태이며 이들은 개방적인 성태도를 가지고 있다(Jeon, Lee, & Rlee, 2004; Kang, 2007). 1990년대에 혼전 성관계에 관해 보수적인 경향이 강했지만(Kim, 1994; Kong, 1993; Song, 1993; Sung, 1996), 2001년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남자대학생의 87%, 여자대학생의 65%가 서로 사랑을 하면 혼전에 성관계를 가져도 괜찮

**주요어:** 생식건강, 교육, 지식, 태도

**Address reprint requests to:** Shin, Kyung Rim, Division of Nursing Science, College of Health Sciences, Ewha Womans University, 11-1 Daehyun-dong, Seodaemun-gu, Seoul 120-750, Korea. Tel: 82-2-3277-2886, Fax: 82-2-3277-4986, E-mail: krshin@ewha.ac.kr

- 본 연구는 이화여자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 This study was supported by grant from the Research Institute of Nursing Science, Ewha Womans University.

투고일 2010년 5월 25일 / 수정일 2010년 8월 15일 / 게재확정일 2010년 8월 16일

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배우자의 혼전 성경험에 대해서도 남자 73.6%, 여자 62.8%가 상관없다고 하였다(Chae & Jung, 2004). 이는 대학생의 성에 대한 태도가 예전에 비해 더 개방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Jeon 등(2004)의 연구에서도 대학생들이 긍정적, 개방적인 성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랑하는 사이의 혼전성관계에 79.2%가 찬성하였으며, 사랑하지 않는 사이의 혼전성관계에 37.6%가 찬성하여 혼전 성관계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와 같이 대학생들은 성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생식건강과 관련된 지식은 대중매체나 인터넷 등의 음성적 경로를 통해 습득하고 있다(Choi & Ha, 2004; Lee, 2004). 대학생의 이런 미디어를 통한 성관련 매체에 대한 접촉은 성인영화 61.8%, 인터넷 포르노 사이트 35.7%, 성인만화 34.4%, 여성잡지 34%, 포르노 비디오 31.4%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Choi & Ha, 2004; Lee, 2004). 생식건강에 관련된 음성적인 지식습득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대학생들은 그릇된 성지식을 가지기 쉬우며, 대학생들의 성지식은 실제적으로 낮은 수준이다(Choi & Ha, 2004).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Republic of Korea (2005)의 자료에 의하면, 미혼모 시설에 입소한 미혼모들의 연령별 비율은 대학생들의 연령인 21~25세가 45.8%로 가장 많았으며, 이들의 학력은 고졸이 47%로 가장 많았지만, 대학교 재학 이상도 17.7%에 달하였다.

Civic (2000)은 미국의 18~25세의 대학생 2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4%만이 지속적으로 콘돔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또한 대학생 1865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을 때, 성교경험이 있는 372명의 대학생 중 성병예방을 위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채 성관계를 한다는 응답자가 36%, 임신예방을 위해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가 15%로 나타났다(Chang & Lee, 2003). 또한 370명의 최근 1년간 성경험이 있는 남자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을 때에도 전체 응답자의 38%만이 콘돔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되었다(Park & Lim, 2002).

대학생들의 성지식과 성태도 및 성행위의 실태가 이렇함에도 불구하고, 대학생의 생식건강에 대한 대학 내에서의 교육은 일회적이고 임시적인 성교육에 국한되고 있으며, 대부분 추상적이고 생물학적인 지식만을 전달하는 성교육에 불과하므로 대학생들의 요구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Kim, 2000). von Sadowszky, Kovar, Brown과 Armbruster (2006)의 연구에서는 젊은 사

람들이 피임과 성병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에 대하여 배우기를 바라고, 그들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성적 건강에 대한 프로그램은 편안하면서, 교육 시 성병에 대한 위협이 아닌, 성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핵심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해 주는 프로그램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대학생들이 요구하는 성지식과 성행위 등에 대한 적절하고 구체적인 생식건강교육이 필요하다(Kim, 200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표준화된 생식건강증진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여 대학생 대상의 생식건강증진 프로그램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에게 표준화된 생식건강증진에 대한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그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생식건강증진 프로그램 교육 전과 후의 대학생의 성지식의 차이를 확인한다.
- 생식건강증진 프로그램 교육 전과 후의 대학생의 성태도의 차이를 확인한다.

## 연구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표준화된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이를 평가한 후 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단일집단 내 사전 사후 비교연구이다.

### 2.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전국의 3개 대학교 즉, S시의 E대학교, D시의 C대학교, D시의 K대학교에서의 생식건강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본 연구의 수행에 동의한 E대학교의 28명, C대학교의 23명, K대학교의 28명의 남녀대학생으로 총 7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 3. 연구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묻는 9문항과 성지식 및 성태도를 파악하기 위한 구조화된 도구를 사용하였다.

1) 성지식

본 연구에서의 성지식 측정도구는 Parcel, Lettman과 Meyers (1979)의 도구와 Lee (1994)의 도구, Kye (1998)의 도구, Sung (2000)의 도구를 Jeon 등(2004)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35문항으로 생식생리 8문항, 성심리 3문항, 임신 8문항, 피임 및 낙태 5문항, 성병 및 AIDS 10문항, 성폭력 1문항의 6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정답은 1점, 오답 및 모른다는 0점으로 처리하였으며,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측정하였다. 최저 0점에서 최고 10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성에 대한 지식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Jeon 등(2004)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851$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89$ 이었다.

2) 성태도

본 연구에서의 성태도의 측정도구는 Kang (2007)의 도구를 수정·보완한 35문항에 전문가 타당도 검증과정을 거친 성에 대한 미신 4문항을 추가하여 총 39문항으로 하였으며, 성의식 10문항, 성행위 8문항, 순결 8문항, 이중적 성 가치관 6문항, 음란매체 3문항, 성에 대한 미신 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매우 그렇다'(5점), '그렇다'(4점), '보통이다'(3점), '아니다'(2점), '전혀 아니다'(1점)의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성태도가 개방적임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당시 Kang (2007)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875$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97$ 이었다.

4. 자료수집

본 연구의 교육 참여자 모집을 위하여 각 학교 게시판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생식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홍보한 후 교육에 참가를 희망하는 남녀대학생을 모집하였다. 전국의 3개 대학에서 참가를 희망하는 남녀대학생에게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이에 동의한 대상자에게 생식건강증진 프로그램 교육 전에 구조화된 설문지를 작성하고, 교육 후에 같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08년 1월 8일부터 2008년 1월 11일까지였다.

구체적인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실험처치

전국 대학생 6,000명을 대상으로 한 사전 조사를 통하여

대학생의 성지식 수준 및 요구도를 파악하였다. 성지식 부분에서는 성폭력 부분에서 정답률이 52.8%로 가장 낮았으며, 성병에서 55.9%, 피임과 낙태가 64.3%, 임신이 64.4%, 생식생리가 72.7%, 성심리에서 가장 정답률이 높은 72.7%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생들이 희망하는 교육요구도는 피임법이 가장 높았으며, 올바른 이성교제, 남녀 신체적·심리적 특성 차이, 배란·월경·몽정·사정에 대한 지식, 성병예방 및 치료, 성폭력 예방과 대처, 자위행위·남녀 성행위기법 등의 순으로 요구도가 높았다(Shin, Park, & Hong, 2008).

이러한 사전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가장 성지식이 낮고 성교육의 요구도가 높은 내용을 프로그램의 주요내용으로 하여 연구자와 성의학, 성심리학, 여성학, 간호학 등의 전문가 회의를 통하여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을 최종 구성하였다. 개발된 생식건강증진 프로그램은 정보제공 100분, 실습 및 역할극 10분, 강사소개 및 정리 10분으로 하여 2시간/회, 4일간 진행하여, 총 8시간 실시하였다. 4가지의 주제로 이루어졌으며, 하루에 한가지의 주제를 교육하였다. 프로그램의 주제별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의 의미 및 성폭력을 주제로 성의 의미 및 성폭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대처방법 역할극을 실시하였으며, 남녀 생식기 특징과 피임법 및 성병의 주제로 피임법, 성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콘돔 사용법을 실습하였다. 그리고 올바른 이성교제의 주제로 올바른 이성교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성교제시 상황에 대한 역할극을 하였으며 성교와 성기능장애 및 성수수자를 주제로 성반응, 성기능장애, 성소수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인형역할극을 실시하였다. 강사는 각 주제에 따라 성의학(산부인과 의사), 간호학, 여성학, 심리학 전문가가 담당하였으며, 3개의 대학에서 프로그램이 동시에 진행되었다(Table 1). 각 주제별 강사는 동일한 전문가로 구성하였으며, 불가피한 경우 같은 분야의 전문가로 대체하였다. 이러한 경우 각 주제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을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가회의를 통해 개발된 교재, 교육안 및 강의 노트를 사용하였고, 각 내용별로 배정된 시간에 따라 강의가 진행되었다.

프로그램에 이용된 교육매체는 소책자, 슬라이드, 칠판, 실습기구(생식기모형, 경구용 피임약, 피임기구 등), 인형 등이었다.

6. 자료분석

자료의 분석은 SPSS/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다

Table 1. Contents of Education Program about Reproductive Health Promotion

| Contents  | Details  | Fields of experts |
|---|--|-------------------|
| Meaning of sex and sexual violenc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Providing information about meaning of sex, sexual violence, prevention and defense of sexual violence</li> <li>Role play for defense of sexual violence</li> <li>Question-and-answer and discussion</li> </ul>   | Women's studies   |
| Characteristics of reproductive organ, contraceptive methods and venereal diseas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Providing information about characteristics of reproductive organ, knowledge related reproductive health, contraceptive methods, using contraceptives, venereal disease and prevention of venereal disease</li> <li>Practice of using a condom</li> <li>Question-and-answer and discussion</li> </ul>                               | Nursing           |
| Healthy relationshi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Providing information about healthy relationship for correction of sexual attitudes</li> <li>Role play about situations with relationship</li> <li>Question-and-answer and discussion</li> </ul>  | Psychology        |
| Intercourse, disorders of sexual function, coping of sexual disfunction and sexual minorities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Providing information about intercourse, sexual response, disorders of sexual function, coping of sexual disfunction and sexual minorities</li> <li>Providing information about results of current research about sex and reproductive health</li> <li>Role play using dolls</li> <li>Question-and-answer and discussion</li> </ul> | Sexology          |

음과 같은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평균 및 표준편차, 빈도분석을 하였다.
- 프로그램 전과 후의 성지식 및 성태도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응표본 평균차이 검정(paired sample t-test)을 사용하였다.

## 7. 윤리적 고려

본 연구에서는 E대학교 IRB의 승인을 받고, 연구대상자에게 대상자 모집 시 연구의 목적 및 방법, 연구참여에 대한 익명성의 보장, 자발적인 연구참여 동의와 거부, 중도포기 가능, 발생 가능한 이익과 불이익 등을 포함하는 내용을 구두와 서면으로 설명하고 자발적인 동의서를 받아 연구대상자를 윤리적으로 보호하였다.

## 연구결과

### 1. 일반적인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총 79명으로 남학생이 25.3%, 여학생이 74.7%로 여학생이 훨씬 많았다.

연령은 평균 21.7세였으며, 소속학과는 인문계열이 20.35%, 자연계열이 75.9%, 예체능계열이 3.8%로 나타났다(Table 2).

### 2. 생식건강증진 프로그램 교육 전과 후의 성지식의 차이

연구대상자들이 생식건강증진 프로그램의 교육 전후로 성지식이 변하였는지에 대하여 검정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대상자의 생식건강증진 프로그램의 교육 전의 성지식의 점수는 100점 만점에 76.60±16.65점이었고, 교육 후에는 82.78±13.52점으로 성지식의 점수가 높아졌고, 이러한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t=3.427, p=.001$ ).

구체적으로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생식건강증진 프로그램 교육 전에는 성지식의 하부영역 중 성심리의 점수가 가장 높았고, 임신, 피임과 낙태, 생식생리, 성병, 성폭력의 순이었다. 생식건강증진 프로그램 교육 후의 성지식의 하부영역별 차이를 보면, 생식생리, 피임 및 낙태, 성병 및 AIDS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able 4).

### 3. 생식건강증진 프로그램 교육 전과 후의 성태도의 차이

연구대상자들이 생식건강증진 프로그램의 교육 후, 성태도의 변화에 대하여 검정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79)

| Characteristics            | Categories         | n (%) or M±SD   |
|----------------------------|--------------------|-----------------|
| Gender                     | Male               | 20 (25.3)       |
|                            | Female             | 59 (74.7)       |
| Age                        | 19                 | 17 (21.5)       |
|                            | 20                 | 18 (22.8)       |
|                            | 21                 | 15 (19.0)       |
|                            | 22                 | 10 (12.7)       |
|                            | ≥23                | 19 (24.1)       |
| Grade                      | Freshman           | 26 (32.9)       |
|                            | Sophomore          | 19 (24.1)       |
|                            | Junior             | 21 (30.4)       |
|                            | Senior             | 4 (5.1)         |
|                            | Others             | 6 (7.6)         |
| Department of major        | Human science      | 16 (20.3)       |
|                            | Natural science    | 60 (75.9)       |
|                            | Arts and physics   | 3 (3.8)         |
| Marital status             | Married            | 4 (5.1)         |
|                            | Unmarried          | 75 (94.9)       |
| Living with                | Living with family | 49 (62.0)       |
|                            | Living alone       | 30 (38.0)       |
| Religion                   | None               | 34 (43.0)       |
|                            | Christianity       | 25 (31.6)       |
|                            | Buddhism           | 12 (15.2)       |
|                            | Catholicism        | 7 (8.9)         |
|                            | Others             | 1 (1.3)         |
| Economic status of home    | High               | 34 (43.0)       |
|                            | Middle             | 32 (40.5)       |
|                            | Low                | 13 (16.5)       |
| Pocket money (won/monthly) |                    | 274,657±107,498 |

대상자의 생식건강증진 프로그램의 교육 전의 성태도의 점수는 100점 만점에 71.17±5.90점이었고, 교육 후에는 72.53±5.25점으로 성태도의 점수가 높아졌고, 이러한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t=2.443, p=.017$ ).

구체적으로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생식건강증진 프로그램 교육 전에는 성태도의 하부영역 중 이중적 성 가치관의 점수가 가장 높았고, 성행위, 성에 대한 미신, 순결, 성의식, 음란매체의 순이었다. 생식건강증진 프로그램 교육 후의 성지식의 하부영역별 차이를 보면, 성행위, 순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able 6).

**Table 3.** Differences of Sexual Knowledge between Before and After Education Program about Reproductive Health Promotion (N=79)

| Variables        | M±SD        | t     | p    |
|------------------|-------------|-------|------|
| Sexual knowledge |             | 3.427 | .001 |
| Before education | 76.60±16.65 |       |      |
| After education  | 82.78±13.52 |       |      |

**Table 5.** Differences of Sexual Attitude between Before and After Education Program about Reproductive Health Promotion (N=79)

| Variables        | M±SD       | t     | p    |
|------------------|------------|-------|------|
| Sexual attitude  |            | 2.443 | .017 |
| Before education | 71.17±5.90 |       |      |
| After education  | 72.53±5.25 |       |      |

**Table 4.** Differences of Subcategory about Sexual Knowledge between Before and After Education Program about Reproductive Health Promotion (N=79)

| Subcategory about sexual knowledge |                  | M±SD         | t     | p    |
|------------------------------------|------------------|--------------|-------|------|
| Physiology                         | Before education | 68.20±17.31  | 3.753 | .000 |
|                                    | After education  | 75.00±14.15  |       |      |
| Psychology                         | Before education | 91.14±23.70  | 1.639 | .105 |
|                                    | After education  | 95.36±16.65  |       |      |
| Pregnancy                          | Before education | 81.33±21.55  | 1.691 | .095 |
|                                    | After education  | 85.60±20.12  |       |      |
| Contraception and abortion         | Before education | 76.96±23.33  | 3.042 | .003 |
|                                    | After education  | 85.57±20.74  |       |      |
| Venereal disease and AIDS          | Before education | 67.22±18.39  | 3.625 | .001 |
|                                    | After education  | 74.81±15.68  |       |      |
| Sexual abuse                       | Before education | 164.56±48.14 | 0.276 | .783 |
|                                    | After education  | 65.82±47.73  |       |      |

**Table 6.** Differences of Subcategory about Sexual Attitude between Before and After Education Program about Reproductive Health Promotion (N=79)

| Subcategory about sexual attitude |                  | M±SD        | t     | p     |
|-----------------------------------|------------------|-------------|-------|-------|
| Sexual consciousness              | Before education | 65.39±9.31  | 1.592 | .116  |
|                                   | After education  | 66.66±7.95  |       |       |
| Intercourse                       | Before education | 77.69±11.68 | 2.147 | .035  |
|                                   | After education  | 80.03±9.07  |       |       |
| Sexual morality                   | Before education | 71.61±7.03  | 2.342 | .022  |
|                                   | After education  | 73.39±5.87  |       |       |
| Doublethink                       | Before education | 86.95±12.13 | 1.517 | .133  |
|                                   | After education  | 86.95±14.55 |       |       |
| Lewdness media                    | Before education | 56.54±13.16 | 0.000 | 1.000 |
|                                   | After education  | 56.54±12.62 |       |       |
| Sexual superstition               | Before education | 73.99±10.81 | 1.735 | .087  |
|                                   | After education  | 76.14±9.74  |       |       |

## 논 의

본 연구는 남녀대학생에게 표준화된 생식건강증진에 대한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그 효과를 확인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생식건강증진 프로그램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생식건강증진 프로그램의 교육 전 성지식의 평균점수는 76.60점이었는데, 이는 Kang (2007)의 530명의 남녀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지식 점수 67.83점보다 높은 수준이며, Jeon 등(2004)이 312명의 남녀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72.54점의 성지식 점수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본 연구의 성지식점수는 생식건강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한, 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대학생의 평균점수이므로 Kang (2007)과 Jeon 등(2004)의 일반대학생의 성지식점수보다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교육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일반대학생보다 성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생식건강에 대한 교육을 신청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의 성지식의 영역별 점수는 성폭력과 성병 및 AIDS에 대한 성지식의 점수가 가장 낮았는데, Jeon 등(2004)과 Kang (2007)의 연구에서도 본 연구결과와 같이 성폭력과 성병 및 AIDS에 대한 성지식의 수준이 성지식 중에서 가장 낮았다. 대학생들의 성폭력과 성병 및 AIDS에 대한 지식이 낮다는 것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내용이고 이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 대학생들은 성태도 중에서도 성행위에서 가장 개방적인 성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그들은 성폭력, 성병 및 AIDS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지식이 낮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

실제적으로 대학생 792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대학생의 성경험률은 19.8%이었으며, 특히 남학생의 경우에는 49.8%에 달하였다(Ahn et al., 2008). 또한 첫 성교나이는 평균 19.2세이며, 첫 성교 이후 현재까지 그들의 성파트너 수는 1명에서 10명 이상으로 매우 다양했으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많은 수의 성파트너를 가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성적으로 활발한 대상자들의 성병 감염률은 3.9%, 특히 남학생은 4.5%에 이르렀다(Ahn et al., 2008). 이렇듯 실제적으로 대학생들은 과거보다 개방된 성행위를 하고 있으며, 성을 대하는 태도 또한 본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개방적이었지만, 그와 비례적으로 성병에도 많이 노출되어 있었다. 현대사회에서 대학생의 성태도가 개방적이라는 사실은 Kang (2007)과 Jeon 등(2004)의 연구의 결과에서도 뒷받침되고 있는 사실이다. 따라서 개방적인 성태도를 가지고 있는 대학생이 올바른 성지식을 가지고 성행위에 대해 지켜야 할 점을 수행할 수 있다면, 현재의 실태보다는 보다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성행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교육이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이다.

Mounir, Mahdy와 Fotohy (2003)은 이집트의 여대생 354명을 대상으로 생식건강 교육 프로그램을 하였고, 그 결과, 성지식과 성태도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서 생식건강증진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성지식과 성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과 같은 결과였다. 본 연구에서의 프로그램의 효과는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전, 사

전 조사를 통하여 대상자들이 원하는 내용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그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났다고 보여진다. 이처럼 프로그램의 내용은 매우 중요하다. Kim, Im과 Kim (2010)이 여대생을 대상으로 성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였을 때, 그들의 성권리 인식이 교육 후 유의하게 향상되었음을 감안한다면 생식건강 및 성에 대한 교육의 효과와 중요성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Lee, Choi, Cha, Kim와 Lee (2006)가 중, 고등학생 78,593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성관계 경험률이 전체의 5.1%이었고,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경험률이 더 높았다. 성관계 시작 연령이 14.2세이었으며, 성관계 경험자 중 피임 실천율이 38.1%에 불과했다. 이러한 면을 고려해 볼 때 생식건강에 대한 교육은 대학생뿐 아니라 중, 고등학생에게도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생식건강증진을 위한 정규 프로그램은 거의 없으며, 대부분 일회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이 아닌 생물학적인 지식 전달에 머무는 추상적인 내용전달만을 할 뿐이다. 그리고 생식건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모두 포괄하면서 이를 프로그램의 주된 내용으로 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생식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정규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실습을 함께 하는 등의 실질적인 내용을 다루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의 생식건강증진에 대한 프로그램은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진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프로그램의 차이를 두지 못하였다. 하지만 남학생은 성병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알기를 원하고, 여학생은 피임에 대한 지식을 얻기를 원하는 등(Kim, 2003) 성별에 따른 교육요구도가 다르기 때문에 성별에 따라 생식건강 프로그램의 구성이 다르다면 보다 더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의 생식건강 프로그램은 오프라인 교육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생식건강과 관련된 성에 대해 개방된 장소에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그리 자연스럽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생식건강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싶지만, 용기가 나지 않아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고, 프로그램을 받은 후 다시 궁금한 점이 있어 교육을 받고 싶어지더라도 다시 생식건강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란 쉽지만은 않은 일이다. 따라서 인터넷을 이용한 생식건강 교육은 이러한 면에서 학생들에게 매우

긍정적이고 보다 큰 효과를 나타낸다(Whittington, Cook, Barratt, & Jenkins, 2004). 인터넷과 컴퓨터를 이용한 e-러닝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으며, 그들이 자신의 교육수준을 스스로 확인해 볼 수 있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교육이 가능해질 수 있다. 또한 오프라인 생식건강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다시 궁금한 점이나 필요한 내용에 대해 스스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e-러닝 프로그램의 개발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생식건강과 관련된 교육을 항상 정해진 생식건강 관련 전문가에게만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Mevsin, Guldal, Gunvar, Saygin과 Kuruoglu (2009)의 연구에서는 동료교육을 포함하는 생식건강 프로그램이 매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료에 의한 교육은 생식건강과 관련된 성에 대한 내용을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루어지지 않아도 되며, 동료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내용이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다. 따라서 동료교육을 수행할 학생들을 전문적으로 교육하여 그들의 친구 및 동료에게 생식건강과 관련된 내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의 구성이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생식건강증진 프로그램 전과 후의 성지식 및 성태도의 변화를 확인하였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하부영역에서 살펴볼 때, 성지식에서는 생식생리, 피임 및 낙태, 성병 및 AIDS의 지식에서는 프로그램 적용 전과 비교하여 적용 후에 유의한 변화가 있었지만, 성심리, 임신, 성폭력 부분에서는 모두 성지식의 점수가 증가하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이는 본 연구의 프로그램이 1일에 2시간씩, 4일 동안 이루어졌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짧은 시간 내에 성지식을 크게 증가시키기는 힘들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성태도에서는 성행위, 순결에서는 프로그램 적용 전과 비교하여 적용 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지만, 성의식, 성에 대한 미신에서는 성태도의 점수는 향상되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고, 이중적 성가치관, 음란매체에서는 프로그램 적용전과 후의 점수차가 없었다. 이 또한 프로그램이 4일간의 짧은 시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상자의 성태도를 확연히 변화시키기 힘들었다고 볼 수 있다.

대학생들의 성지식을 향상시키고, 보다 긍정적인 성태도와 바람직한 성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생식건강 프로그램의 확대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교 내에 생식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

이 필요하다. 누구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리고 보다 자세히 배울 수 있도록 교양과목으로 정착시킨다면 보다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대상자들의 교육요구는 변화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생식건강증진 교육의 평가, 요구도 조사와 함께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질 향상이 필요하다.

##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남녀대학생을 대상으로 표준화된 생식건강증진에 대한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그 효과를 확인함으로써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생식건강증진 프로그램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08년 1월 8일부터 2008년 1월 11일까지였으며, 연구대상자는 전국의 3개 도시의 3개 대학교에서의 생식건강 프로그램에 참여한 남녀대학생 79명이었다.

생식건강증진 프로그램은 1회 2시간씩, 총 8시간을 4일에 걸쳐 표준화된 생식건강증진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측정도구로는 Jeon 등(2004)의 성지식 측정도구 35문항과 Kang (2007)의 도구를 수정·보완한 성태도 측정도구 39문항을 이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평균, 표준편차, 빈도분석 및 paired sample t-test로 분석하였다.

대학생에게 생식건강증진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적용 전·후의 대학생의 성지식과 성태도를 측정한 결과, 성지식의 수준이 향상되었고, 성태도의 변화가 나타났다. 따라서 생식건강증진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성지식 수준 향상에 도움을 주며, 개방적이었던 대학생의 성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생식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실시를 하고, 교육의 기회를 확대시킨다면, 대학생들의 성지식수준과 성태도가 변화되어 대학생들이 보다 건전한 성행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결론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생식건강증진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이용한 교육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제공이 필요하다.

둘째, 생식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교양과목으로 수강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다 많은 대학생들이 그들과 밀접하게 관련된 내용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남녀의 차이를 고려한 생식건강증진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 REFERENCES

- Ahn, S. H., Park, I. S., Han, J. S., Kim, T. I., Kwak, M. S., & Chung, H. S. (2008). Health behaviors, reproductive health history and sexual behaviors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Womens Health Nursing, 14*(3), 205-212.
- Chae, P., & Jung, M. C. (2004). Study about the sexual attitudes and victimization of Korea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9*(4), 869-886.
- Chang, S. B., & Lee, M. K. (2003). Sexual autonomy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3*(3), 339-346.
- Choi, J. R. (2006). Sex in adolescence and educational counseling. *Theology and Mission, 32*, 359-381.
- Choi, M. S., & Ha, N. S. (2004). A study on knowledge, attitude, and experience in sex and sexual autonomy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Womens Health Nursing, 10*(4), 318-330.
- Civic, D. (2000). College students' reasons for nonuse of condoms within dating relationships. *Journal of Sex and Marital Therapy, 26*(1), 95-105.
- Jeon, G. S., Lee, H. Y., & Rlee, S. J. (2004). Sexual knowledge, attitudes and behaviors of Korea college students and effects of sexual education on sexual knowledge and attitudes.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21*(1), 45-68.
- Kang, H. Y. (2007).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sexual knowledge, attitudes, behaviors and variables forecasting sexual intercourse of university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konghoe University, Seoul.
- Kim, B. S. (2000). A study on actual conditions of the sexual experience and sexual consciousness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ngju Communication Arts College, 7*, 111-124.
- Kim, H. W., Im, E. S., & Kim, N. S. (2010).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sexual rights awareness scale for female adul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Womens Health Nursing, 16*(1), 690-77.
- Kim, K. H. (1994). A study on sex consciousness, thought of marriage, choice of spouse, the motivation of becoming parents for women university students. *Research Review, 7*, 69-83.
- Kim, S. M. (2003). Knowledge on sexuality and needs of sex education fo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Womens Health Nursing, 9*(4), 489-498.
- Kong, M. H. (1993). Concealed sexuality, exaggerated sexuality. *Journal of Women's Studies, 4*, 27-47.
- Kye, S. Y. (1998). *The study of change in knowledge and attitude as the result of sex education: Focusing on the 1st grade students in girl's middle schools*. Unpublished



-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Lee, H. J. (2004). A study on the policy of the sex education for desirable university students. *Research Review*, 20, 5-16.
- Lee, I. S. (1994). *A study on sexual knowledge, attitude, experience, and need of sex educations in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Lee, I. S., Choi, G. Y., Cha, S. H., Kim, M. K., & Lee, J. J. (2006). A survey of sexual behavior of teenagers in South Korea. *Korean Journal of Obstetrics and Gynecology*, 52(10), 1022-1029.
- Mevsin, V., Guldal, D., Gunvar, T., Saygin, O., & Kuruoglu, E. (2009). Young people benefit from comprehensive education on reproductive health. *The European Journal Contraception and Reproductive Health Care*, 14(2), 144-152.
-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Republic of Korea (2005, October). *Survey the present condition and demands for single mother*. Retrieved June 25, 2010, from Web site: <http://www.mogef.go.kr/korea/view/policy>
- Mounir, G. M., Mahdy, N. H., & Fatohy, I. M. (2003). Impact of health education program about reproductive health on knowledge and attitude of female Alexandria University students. *The Journal of the Egyptian Public Health Association*, 78(5-6), 433-466.
- Parcel, G. S., Luttmann, D., & Meyers, M. P. (1979). Formative evaluation of a sex education course for young adolescents. *The Journal of School Health*, 49(6), 335-339.
- Park, S. H., & Lim, D. O. (2002). Factors influencing the self-confidence of using condoms in male college students. *The Korean Public Health Association*, 28(1), 66-71.
- Shin, K. R., Park, H. J., & Hong, C. M. (2008). [Survey of the reproductive health for undergraduate students]. Unpublished raw data.
- Song, J. A. (1993). The conventional wisdom about sexual culture and sexual awareness of Christian university students. *Research Review*, 8, 14-28.
- Sung, H. K. (1996). The attitude and behavior about sexual consciousness of university students. *Collection of Dissertations*, 52, 207-229.
- Sung, S. M. (2000).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sexuality education programs for adolesc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von Sadowszky, V., Kovar, C. K., Brown, C., & Armbruster, M. (2006). The need for sexual health information: Perceptions and desires of young adults. *The American Journal of Maternal Child Nursing*, 31(6), 373-380.
- Whittington, K., Cook, J., Barratt, C., & Jenkins, J. (2004). Can the internet widen participation in reproductive medicine for professionals? *Human Reproduction*, 19(8), 1800-1805.